

## 바다 건너 꿈을 찾는 해외 취·창업



조금 더 멀리 보면 더 많이 보이는 법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게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 진로를 찾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진로를 찾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더 많은 경험과 도전을 위해 해외에서 꿈을 키우고자

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해외 취·창업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방송듣기: 커리어넷>학부모용 오디오 진로정보 진로레서퍼]

### 해외 취·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

요즘은 인터넷만 접속하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은 더 이상 멀고 낯선 나라가 아닌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체험학습을 통해 견문을 넓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또한 국내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해 이전보다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점이 ‘해외’에서도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 해외 취업에 앞서 필요한 것은 ‘열린 마음’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문화와 언어, 음식, 그리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를 존중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소년은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에 대해 비교적 유연하고 자유롭기 때문에 보다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문화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최고야!’라는 생각은 현지에 동화되기도 어렵고 그곳에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데도 방해가 됩니다. 그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 사람들과 잘 동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 해외 취·창업을 위한 다양한 길

해외에서는 외국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둘러보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도 있습니다. 특히 현지어나 영어가 가능하다면 일의 폭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현지에서 대학을 나와 취업을 하는 것이지만, 국내에서 대학까지 졸업한 후 일을 하다가 해외에 있는 다국적 기업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직을 할 때 한국에서의 업무와 관련된 직종으로 할 수도 있으나, 업무나 직종을 바꾸고 싶다면 관련 자격증 및 지식을 쌓은 후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현지에서 창업하는 것은 현지 취업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무작정 창업하기보다는 현지에서 공부를 하거나 기업에 입사해 현지 문화와 비즈니스 환경 등을 익힌 후에 창업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해외 취·창업에 필요한 정보 준비

해외 취·창업에 관한 정보는 KOTRA나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같은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전문취업포털에서도 일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 자체 내에서도 해외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은 정부 기관에서도 학생들이 저렴하게 일정 기간 현지를 둘러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후원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KOTRA나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같은 곳에서 경제적으로 저렴하고 좋은 조건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작은 사무실도 제공해주고 현지에서 필요한 법률 및 세무교육도 시켜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보 및 지원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지 문화에 대해 알려면 그 나라에서 직접 체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이나 책으로 접하는 정보도 중요하지만, 현지에서 최소 몇 달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험한 것들이 현지에서 일을 진행할 때 큰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출처: 학부모를 위한 진로레서퍼 시즌 5, 41·42회)

# 범죄피해자보호사

Victims Support Workers,  
Victim Care Officer

범죄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 도와줘요



## 출현 배경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가정폭력이 증가하면서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건 수사 역시 피해자를 배려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고, 혼란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범죄피해자보호사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 하는 일

범죄피해자보호사는 범죄 피해자나 목격자를 안정시키고,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격려하는 일을 합니다. 수사가 끝난 뒤에도 상담을 통해 정신적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 피해자와 목격자가 보호와 신뢰를 받는다고 느끼게 해줌.
- 발생한 범죄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며, 피해자가 느끼는 분노와 두려움, 슬픔 등의 감정이 정상임을 알려줌.
- 피해자가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받도록 도와줌.
-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안전 보장을 위해 노력함.

## 해외 현황



영국의 범죄피해자보호사는 주로 경찰서의 피해자케어센터 또는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며, 근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당 37~40시간 일하며, 일반 사무직과 비슷한 시간대에 근무하지만 가정 방문 등을 위해 오후 늦은 시간이나 주말에 근무하기도 함.
-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시간도 있지만 피해자와 목격자를 만나기 위해 외근을 자주하는 편임.

## 국내 현황 및 전망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피해자 지원 부족과 부적절한 수사 방식으로 인해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를 배려하는 수사 진행과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국내에서도 범죄피해자보호사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흥미 및 적성

-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섬세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함.
- 피해자와 목격자, 그들의 가족, 경찰과 검찰 등 다양한 사람들과 협동하는 일이 많으므로 의사소통능력과 원만한 대인관계가 필요함.

## 준비 방법

- 국내의 경우 범죄피해자보호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으로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이 있음. 경찰청에서는 2006년부터 심리학 전공자 또는 관련 근무와 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을 선발하고 있음.
- 해외의 경우 취업 후에 경찰서나 소속기관 내에서 훈련을 받으며, 선임직원과 동행하여 현장에서 훈련을 받기도 함. 외부 에이전시에서 제공하는 단기과정을 이수하여 준비하는 경우도 있음. 영국의 경우 관련 국가자격이 있으므로 취업처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면 도움이 됨.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 미래의 직업세계 해외 직업편』)